

# 칼빈과 사돌레토와의 신학적 논쟁

정 준 기 \*

- I. 문제의 제기
- II. 제네바 종교개혁의 배경
- III. 사돌레토의 논쟁의 쟁점
- IV. 칼빈의 응답
- V. 정리

## I. 문제의 제기

1539년 3월 18일 카톨릭교회의 저명한 신학자인 사돌레토(Jacopo Sadoleto, 1477-1547)가 제네바 시의원들과 시민들에게 한통의 편지를 보냈다. 부드럽고 친근한 어휘를 사용한 이 편지는 제네바가 과거에 가졌던 종교, 곧 카톨릭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회유하는 것이었다. 제네바는 이 편지에 응답할 가장 적합한 개신교 신학자를 찾던 중 결국 칼빈임을 깨닫고 칼빈에게 편지의 응답을 부탁하였다. 1539년 9월 1일자로 칼빈은 사돌레토에게 응답하는 장문의 서신을 발송하였다.

본 논문은 칼빈과 사돌레토의 서신들을 분석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영역을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당시 개신교와 카톨릭의 신학적 거장들인 칼빈과 사돌레토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속에서 그들의 논쟁을 전개했는가?

---

\* 광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둘째, 그들의 신학적 논쟁의 초점은 무엇인가?

셋째, 이 논쟁이 칼빈 개인에게, 그리고 개신교와 카톨릭 전체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 II. 제네바 종교개혁의 배경

### 1. 칼빈과 제네바

16세기 초반 제네바는 바젤이나 취리히와 비교해도 조금도 빠지지 않을 만큼 큰 인구 만명정도를 가진 대도시였다. 그러나 지형적으로는 스위스 연방과 사보이공국 그리고 프랑스 왕국 틈에 끼여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도시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치적 상황하에 제네바는 중세 말쯤부터 사보이 공작이 통치하기 시작한다.<sup>1</sup> 제네바의 시민들이 이방인이었던 사보이 통치를 혐오한 것은 지당한 일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스위스의 베른 및 프리부르그와 삼각동맹을 맺고 사보이 공국에 대항하여 갈망하던 독립을 쟁취하였다.

제네바 시민들의 구성원들을 살펴보자면 오랜 전통을 지닌 명문 가문 일부와 갑자기 부자로 신분이 상승된 몇몇 상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산계층인, 상인, 농부, 노동자 그리고 굳이 밝히자면 범죄자와 창녀계층들로 구성되었다. 그렇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귀족계급이 없었다. 정부는 남자 시민의 총회인 꿈문에서 선택된 4인의 행정관에 의해서 연합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행정관들은 다시 25인으로 구성된 소의회(르 메시에 드 주네브)의 통제를 받았다.<sup>2</sup> 이 소의회는 실제적인 중앙 행정기구로서 외교, 국방, 재정문제들을 취급하였다. 1526년 그 당시의 법령으로 소의회 의원들은 제네바에서 출생한 본토 사람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공포하였다. 또한 소의회보다 급이 낮은 200인 의회도 있었다. 200인 의회는 법률제정을 논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의회 의원을 선출할 선거인단 노릇도 하였다.

1530년대에 제네바에는 프로망(Antoine Froment), 파렐(Guillaume

<sup>1</sup> 사보이는 이탈리아와 스위스 사이에 위치한 공국으로써 1860년 프랑스에 합병됨.

<sup>2</sup> les Messieurs de Geneve, 제네바의 신사들이라는 뜻.

Farel), 비레(Pierre Viret), 로베르(Pierre Robert)와 같은 복음주의자들이 있었다. 제네바는 1528년 1월 종교개혁을 선언한 베른의 열띤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삼각동맹의 일원인 프리부르그는 제네바가 개신교로 전향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반대하였다. 자연히 삼각동맹은 깨어지고 제네바는 프리부르그보다는 베른과 더욱 긴밀한 정치·종교적 유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1534년 10월 1일 제네바 시의회는 카톨릭 주교좌를 더이상 인정치 않는다고 대대적으로 선포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카톨릭 성직자들과 수녀들은 제네바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수녀원은 폐기되어 구빈원이 되었고 주교의 집은 짓궂게도 감옥으로 개조되었다. 1535년 8월 10일부터 미사라는 말이 일체 금지되었다. 1536년 5월 21일 남자 시민의 총회인 꿈문은 미신과 우상이 아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소의회의 결의에 따라 전체 의회가 관례대로 종소리와 나팔소리를 듣고 소집되었으며, 수석 평의원 클로드 사보에 앞에서 소의회와 이백인 의회의 포고가 생활 양식에 관해 발의되었다. 그 뒤에 한 큰 소리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도시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과 교리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말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말하라는 요청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미사가 폐기되고 미사들, 성상들, 우상들, 또한 어떤 종류의 것이든 ... 교황의 남용을 다시 획책하거나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이의를 제기하라고 요청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듯이 모든 미사들과 교황의 의식들과 악습들, 성상들, 우상들 그리고 그것이 수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거룩한 복음과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공의에 연합하여 순종하며 살기를 바란다고 이구동성으로 제청하고, 가결하고, 확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였다.<sup>3</sup>

칼빈은 바로 이러한 참 복음을 갈망하는 시대 배경 가운데서 그의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된다.

<sup>3</sup> 프레드 그래함(Fred Graham),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김영배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43에서 인용. *Cak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itz, and E. Reuss (59 vols.; Brunswick, 1863-1900), 21: 201f. Hereafter cited as *Opera*.

## 2. 칼빈의 제네바 1차 사역(1536-38)

1536년 9월 어느 날 칼빈이 프랑스를 떠나 바젤로 가던 중 그날 따라 길 이 막혀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제네바에서 칼빈은 기욤 파렐에 붙들려 본인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스위스 종교 개혁에 우연찮게 관여하게 된다. 후에 칼빈은 그의 시편주석 서문에서 그의 제네바 사역 동기를 이렇게 솔직히 간증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남다른 열심을 가진 파렐이 즉각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놀려 앉히느라고 사력을 다했다. 다른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조용히 앉아 연구에 몰두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협상으로는 아무 결과도 얻어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지, 사정이 이리도 급박한데 도움을 주기를 거절한다면 하나 남께서 나의 은거 생활과 조용한 연구생활을 저주하실 것이라는 악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 저주 섞인 악담에 겁에 질린 나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내가 천성적으로 수줍음을 잘 타고 소심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직무를 맡지 않기로 했다.<sup>4</sup>

그 후 칼빈과 파렐은 1536년 11월 10일자로 “제네바의 모든 시민과 거주자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해야만 하는 신앙고백”과 이어서 1537년 1월 16일에는 “제네바의 교회조직과 그 예배에 관한 조문”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문” 속에는 월 1회마다 성만찬 거행, 출교의 집행, 예배시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시편을 찬송하는 것, 청소년들에게 신앙교리서인 요리문답을 교육시킴, 혼례법의 개정, 시민들의 도덕생활에 대한 정부의 실제 행동을 담당했던 감독이 건의되었다.

소의회는 성찬식의 거행을 월 1회 대신 3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변경한 것 외에는 칼빈과 파렐이 주장한 그들의 모든 건의안을 거의 다 인준하였다. 게다가 200인 의회도 소의회의 결정을 적극 지지할 뿐 아니라 주일성수는 더욱 더 강조하였다:

[주일 설교 시간에는] 푸주간이나, 창자 파는 상점이나, 다른 상점이나, 중고품 상은 개점해서는 안되며, 집에 우상이 있는 사람은 즉각 부숴버려야 하며, 쓸데

<sup>4</sup> Opera, 31: 23-26.

없는 노래를 부른단든지 운에 맡기는 게임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되며 빵장수는 설교 시간에 빵 사라고 소리질러서는 안된다.<sup>5</sup>

그러나 다수의 제네바 시민들은 이러한 건의안이 다소 부담스러웠던지 “신앙고백”에 서명하기를 꺼려하였다. 1538년 1월 개혁자들은 “신앙고백”에 서명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만찬을 거부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시의회는 이러한 거부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꺾그러운 관계 속에서 개혁자들과 제네바 시민들간의 관계는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처음에는 개혁자들에게 호의를 보였던 행정관들마저 시민들의 편으로 되돌아서 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화가 난 칼빈은 “시의회가 악마의 의회가 되었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시의회에 호출되어 “파렐과 칼빈은 시행정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엄한 경고를 받았다.<sup>6</sup>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자 제네바 행정관들과 시민들은 프랑스인 칼빈과 파렐이 혹시 프랑스 정부의 고용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터무니 없는 의심은 더욱 굳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1538년 2월 한 프랑스 관리가 제네바를 몰래 방문하여 개혁자들을 통해 프랑스와 동맹을 제의했기 때문이다. 이를 알게 된 시민중의 일부가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폭도가 되어 충을 발사하는 등 개혁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얹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위에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로잔의 목사가 된 프랑스인 까롤리(Pierre Caroli)가 칼빈을 억울하게도 아리안주의자로 몰아 세웠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제네바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베른의 시의회가 칼빈의 무혐의를 밝혀주고 인신 공격한 까롤리를 해임시키도록 힘을 써 주었다. 베른은 제네바의 단순한 우방의 자세에서 점점 보호자로 군림하려 했다. 제네바의 정치와 종교에 깊이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베른은 제네바 교회 성찬식에서 무교병을 떡으로 교체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제네바 의회는 그 제의를 곧 받아들이기로 했다. 칼빈 자신은 신학적으로 주의 만찬시 사용될 떡이 유교병이거나 무교병인 것, 그리고 포도주가 붉은 것이거나 흰 것인 것에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

<sup>5</sup> Opera, 10a: 11.

<sup>6</sup> Opera, 21: 204.

도 불구하고 베른의 결정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세상권력이 교회를 통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칼빈의 깊은 신앙심을 살피기보다는 베른과 불화를 원치 않았던 제네바 의회는 오히려 칼빈과 파렐에게 설교를 금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세상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부활절에 성찬식은 거행치 않았으나 정부에서 금했던 설교는 하였다. 그 결과는 추방이었다.

칼빈이 추방당하기 직전 고통스러운 마음을 취리히 목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로 토로하였다.:

신실한 동역자인 파렐과 함께 내가 제네바 교회의 지도를 떠맡게 된 이후, 나는 제네바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발견하고자 충성스럽게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내가 떠맡았던 책임이 나를 심하게 억눌렀지만, 나는 결코 어떻게 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내가 책임을 떠맡고 있었던 그 한 해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를 짓눌렀던 역경과 불운의 일부라도 당신들에게 말한다면, 당신들은 거의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도 열 번씩이나 죽음을 동경할 정도였습니다.<sup>7</sup>

칼빈은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다. 구제도에 얽매어 있던 시의회는 교회와 국가의 분립을 주장하는 칼빈 일행을 완고히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왜 칼빈은 실패하여 근경에 봉착했을까?

첫째, 20년이나 칼빈보다 연상이며 제네바와 베른사이의 은밀한 사회분위기를 더 잘 알고 있었던 파렐이 칼빈을 넉넉하게 잘 돕지 못했다. 오히려 파렐 쪽에서 너무 서둘렀고 충동적으로 일해 일을 그르치려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칼빈과 파렐은 자신들이 프랑스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불리한 입장인 것을 망각했다.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로서 충분한 인격적 사طم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 대뜸 “신앙고백”에 서명하라고 할 때 어느 누가 의심없이 신뢰하여 서명할 수 있겠는가!

셋째, 개혁자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요구하였다. 그들이 요구하는 신앙고백의 내용들과 조문들은 시민들의 신앙정도를 숙고하지 않은 채 성숙한 신앙인들이나 지킬 수 있는 부담스러운 것들이었다. 그들은 제네바가 이

<sup>7</sup> 고팡필, 정준기,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1996), 262에서 인용.

제 막 개신교로 개혁을 시작한 영적 “어린 아이들”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타협할 줄 모르던 칼빈과 파렐은 1538년 8월 그곳에서 추방당하여 바젤로 갔다. 그의 동료 파렐은 뇌샤텔의 교회를 맡기 위해 곧 바젤을 떠났다. 혼자 외롭게 남은 칼빈에게도 곧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났다. 그의 독일 친구들인 마틴 부처(Martin Bucer)와 카피토가 환난을 당해 마음이 무거운 칼빈을 스트라스부르크에 초청하였다.

### 3. 칼빈의 스트라스부르크의 사역 (1538-41)

스트라스부르크로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비교적 온화한 관용의 도시였다. 이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루터파, 쾰링글리파, 재세례파와 같은 개신교도들이 각기 다른 신앙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종교·교육에 있어서 갖가지 뛰어난 인물들이 이곳에 포진하고 있었다.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자크 스트웜(Jacques Sturm)이 정치계를, 오토 에콜(Haute Ecole) 대학을 세운 장 스트웜(Jean Sturm)이 청소년 교육을, 그리고 박학한 교리와 뛰어난 조직력을 갖춘 부처가 종교계를 맡고 있었다.

게다가 스트라스부르크에는 거의 500명에 가까운 프랑스인이 피난민으로 와 있었다. 부처는 칼빈이 이 피난민들의 목사로 또 대학의 성경주석 교수로 일해 주기를 원했다. 칼빈은 그곳에 사는 피난민들을 위해 명예를 매는 것을 몹시 주저했으나 부처의 비난, 즉 요나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한다는 악담을 듣고 결국 스트라스부르크를 사역지로 정하여 그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칼빈은 가난한 프랑스인을 상대로 따뜻한 목회자가 되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실패한 권징을 다시 이곳에서 시도하고자 했는데, 이번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험할 수 있었다. 회중 한명 한명 개인적으로 면담함으로써 불필요한 긴장을 제거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곳에서 칼빈은 부처의 견해를 많이 반영하여 프랑스 예배모범을 만들었고 시편에 음악을 맞춘 찬송가도 발행하였다. 이곳에 있는 동안 칼빈은 신성로마제국 황제인 찰스 5세가 추구하는 교회 일치 모임(1540년 6월 하계나우 회의, 같은 해 11월의 보름스 회의, 1511년 4월 5일의 라티스본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다양한 견해를 파악하였다. 예를 들면 루터의 후계자가 될 신실한 필립 멜랑히톤

과 같은 많은 독일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성을 맺었다. 이곳에서는 그는 일생 일대의 놀라운 만남이 있었으니 이데레트 드 뷔르(Idelette de Bure)와 만나 사랑 속에서 결혼한 것이었다.

이곳에서 그의 생애가 더욱 찬란히 빛을 발한 것은 그가 굉장히 심열을 기울인 개정판 <기독교 강요>를 1539년 8월 발행한 것이다. 칼빈은 이 개정판에서 기독교를 총 요약한다는 웅장한 뜻을 보였으며 또한 “신학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준비와 훈련을 충분히 잘하여 성경에 쉽게 접근하고 부단히 성경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후배 양성하려는 목적을 제시했다.<sup>8</sup> 개정판 <강요>는 증보이자 재구성이었다. 새로운 장들이 대폭 첨가되어 1536년 <강요>보다 무려 3배 가량이나 페이지수가 늘어났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많은 양과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독서를 하였다. 고대 교부들의 신학서적은 물론이고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의 글도 섭렵하였다. 박식하면서도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인 부처에게서도 많은 좋은 점을 배웠다. 또한 칼빈은 1536-37년 사이에 제네바에서 강제한 것으로 보이는 <로마서>를 1540년 3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출판하였다. <로마서>는 헬라이어 신약성경에서 본문을 먼저 라틴어로 단락을 구분하여 번역한 다음 주석과 주해를 덧붙였다. 칼빈은 이전에 해오던 방식과는 달리 <로마서> 본문의 문맥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한 단어 한 단어씩 해설하는 어휘모음의 파분함을 극복하고 원 성경 저자의 저술의도에 놀라울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였다. 그는 성경 자체는 신령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방법으로 곧 적응의 개념(concept of accommodation)으로 말씀하셨다고 확고히 믿었다. 따라서 그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특별히 선호했다. 이 문자적 해석 속에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되고, 명백하며, 고유한 자기 계시를 발견코자 했다.

#### 4. 사둘레토에게 보내는 칼빈의 답장에 관한 배경

칼빈이 제네바의 1차사역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을때 제네바에서 하나의 큰 사건이 터졌다. 당시 카톨릭교회 최고의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며, 추기경인 사둘레토가 제네바 시의회와 시민에게 카톨릭교회로 복귀하라는 정중한

<sup>8</sup> Opera, 1: 255-56.



권면의 서신을 보내왔던 것이다.

시의회회는 이 편지를 받고 몹시 난감해 하였다. 왜 시의회가 난감하게 되었다는 말인가?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겹쳐있기 때문이다.

첫째, 만일 제네바가 카톨릭으로 복귀한다면 지금까지 수고한 종교개혁의 노력은 일순간에 수포로 돌아간다.

둘째, 종교개혁의 수포는 종교문제로 끝나지 않고 제네바가 다시 이웃나라에 합병되거나 속국의 형태로 전환되는 가능성을 가진다. 언제 어느 때 프랑스의 영토로 합병되거나 아니면 이탈리아의 통치권의 영향력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정치적 갈등을 예상해야 한다. 한마디로 제네바의 독립성은 없어지게 된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환경에 빠진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네바 시의회와 칼빈과 파렐을 추종하는 시의 중요인물들은 제네바가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리고 시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사둘레토에게 답장을 쓸 신학자를 물색했다. 제네바에서 그러한 인물을 찾을 수 없었다. 이웃 베른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베른에서도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베른 시당국은 제네바 시당국에 칼빈이 사둘레토에게 응답할 가장 적합한 신학자라고 추천하였다. 제네바 시의회회는 베른의 추천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사둘레토의 편지는 베른의 한 목사인 시몬 술저(Simon Sulzer)에 의해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칼빈에게 전달되었다. 칼빈은 1539년 8월 중순에 필을 들어 동년 9월 1일 사둘레토에게 답장을 보냈다.

### Ⅲ. 사둘레토의 논쟁의 쟁점

칼빈의 제자인 베자(Theodore Beza, 1519-1605)는 칼빈이 제네바를 비운 사이에 제네바 교회를 카톨릭교회로 복귀시키려는 사둘레토를 목자[칼빈]가 없는 제네바 양떼들을 미혹시켜 로마창녀[카톨릭교회]의 무릎으로 인도하는 기회주의적 사악한 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칼빈이나 파렐과 같은]뛰어난 목회자들이 쫓겨났을 때의 상황을 호기로 보고, 그리고 [이 때야 말로] 양떼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둘레토]는 이웃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 . . 제네바의 의회, 위원회, 시민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로마창녀의 무릎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했다.(Observing his

opportunity in the circumstances which had occurred, and thinking that he would easily ensnare the flock, when deprived of its distinguished pastors, under the pretext of neighborhood . . . sent a letter to his, so-styled, most Beloved Senate, Council, and People of Geneva, omitting nothing which might tend to bring them back into the lap of the Romish Harlot.)<sup>9</sup>

베자의 혹평은 칼빈의 부재중에 일어난 제네바의 특수환경과 그가 칼빈의 제자라는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사실 사들레토는 베자가 생각한 만큼 악당은 아니었다.

사들레토는 1477년 모데나(Modena)에서 태어나 페라라대학(University of Ferrara)에서 수학했다. 그의 아버지는 동대학의 법학교수였다. 사들레토는 1499년경 로마에와 올리비에로 카라파(Oliviero Caraffa) 추기경의 지원을 받으면서 고대인문학(Classical studies)을 공부했고, 로마 상류 학자층에 진입했다. 메디치가의 기오반니(Giovanni de Medici)가 교황 레오 10세(Pope Leo X, r. 1513-21)가 되면서 사들레토에게도 로마 카톨릭교회에 봉사하는 기회가 열렸다.

레오는 1513년 사들레토를 교황의 비서로 임명했고, 1517년에는 프랑스 아비뇽 근처에 소재한 카펜트라(Carpentras)의 주교로 임명했다. 사들레토가 주교로 임명받았지만 그의 교구에 부임한 때는 1523년이였다. 레오가 교황으로 재임할 때는 로마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오의 후임 하드리아안 6세(Adrian VI, r. 1522-23)의 짧은 통치가 있은 후 그는 또다른 메디치 가문의 교황 클레멘트 7세(Clement VII, r. 1523-34)의 부름을 받아(1524년) 교황청의 비서로 활동하다가 1527년 다시 그의 교구로 돌아가 목양에 힘썼다.

정치세계의 모략과 암투를 싫어하여 조용한 교구로 돌아온 사들레토는 그 나뉠대로 양떼들을 사랑하고 기독교 인문주의를 장려하려 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와 친구이기도 했으며, 에라스무스가 주장한 경건과 평화로운 교회 개혁에 강한 동질성을 표시했다. 사들레토는 1536년 추기경에 승진했으며, 1537년에 교회개혁을 위한 교황청의 특별위원

<sup>9</sup> Theodore Baza, *Life of Calvin in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on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tr. Henry Beveridge (3 vols. Grand Rapids, Mich. 1958), I, lxxiii.

으로 위촉되어 총체적인 카톨릭교회의 개혁을 위한 중요한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들레토는 당시 부패와 무능과 무기력에 찌들린 일반 카톨릭 성직자들과는 삶에서, 사상에서 확실히 달랐다. 그는 카톨릭의 부패를 인정했으며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천명하였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걸잡을 수 없는 교회의 분열을 보면서 사들레토는 가슴 아파했다. 루터파 개혁자 중 비교적 온건한 필립 멜랑히톤(Philip Melancthon)에게 1537년 6월 교회의 연합을 위해 친절하고 정중한 편지를 보냈고 1538년 7월에는 스트라스부르크 교육자이며 영적 지도자인 요한 스트룸(Johann Strurm)에게도, 그 후에는 마틴 부처(Martin Bucer)에게도 비슷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사들레토는 말년을 교황 바울 3세(Paul III, r. 1534-49)를 도와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위해 힘썼다.

사들레토의 눈에 종교개혁은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자세히 보겠지만 그와 개신교 신학자간에는 타협할 수 없는 큰 틈이 있었다. 사들레토는 근본적으로 에라스무스와 같이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신학 안에서 개혁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개혁의 의지와 노력은 실패하였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들레토의 편지에 나타난 신학적 논쟁을 하나씩 점검해 보기로 하자.

### 1. 로마카톨릭 교회는 분열될 수 없다.

“참으로 사랑하는 제네바의 행정관들과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사랑이 넘쳐흐르도록 편지의 서두를 쓴 후 사들레토는 하나이며 참교회인 로마 카톨릭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있다고 지적한다.<sup>10</sup>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크리스찬 연합과 평화의 적들인 어떤 교활한 인간들이 과거 프랑스의 몇몇 도시와 촌락에서 했던 것처럼 제네바에 사악한 불화의 씨앗을 뿌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카톨릭교회를 변함없이 섬겨왔던 조상들의 길을 무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sup>10</sup> Sadoletto's Letter to the Genevans in *A Reformation Debate*, ed., John c. Olin(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6), 29.

투쟁과 싸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그것은 교회의 권위를 공격함으로 자기들만의 새로운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취하는 태도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언제나 내 마음의 깊은 생각을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비탄과 슬픔을 아실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어머니인 교회가 것처럼 사랑스러운 많은 자녀들을 한 번에 빼앗긴 것을 한탄하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당신들의 위협과 손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정립된 훌륭한 옛것을 혁신시키려는 자들, 곧 난동과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은 인간의 영혼에 너무도 큰 해를 입힐 뿐 아니라(이것은 모든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지요), 사적·공적인 일들에 모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For after it was brought to my ears that certain crafty men, enemies of Christian unity and peace, had, in like manner, as they had previously done in some towns and villages of the brave Helvetii, cast among you, and in your city, the wicked seeds of discord, had turned the faithful people of Christ aside from the way of their fathers and ancestors, and from the perpetual sentiments of the Catholic Church, and filled all places with strife and sedition (such is always the appropriate course of those who seek new power and new honors for themselves, by assailing the authority of the Church), I declare before Almighty God, who is always present beholding my inmost thoughts, that I was exceedingly grieved and affected with a kind of double pity, when, of the one hand, I thought I heard the groans of the Church our mother, weeping and lamenting at being deprived at once of so many and so dear children; and of the other, dearest brethren, I was concerned at your losses and dangers. For well knew I, that such innovators on things ancient and well established, such disturbances, such dissensions, were not only pestiferous to the souls of men(which, however, is the greatest of all evils) but pernicious also to private and public affairs.)<sup>11</sup>

사들레토의 견해에 의하면, 카톨릭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자는 음흉하고 교활한 자로서 교회의 연합과 평화의 적들이다. 어디 이 뿐이라. 카톨릭 교회에 적의를 드러내는 것은 성도의 진정한 겸손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시고, 참 진리는 하나뿐이므로 참 진리를 선포

<sup>11</sup> Ibid.. 30-31.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역시 하나이어야 하며 개신교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교파분열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계속해서 그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명령한 것은 평화와 연합이라고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실수를 지적한다:

이미 이들이 [개혁을] 시작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종파들이 교회를 나누어 놓았습니까? 종파분열하는 그들은 일치하지 않고 여전히 서로 불일치합니다. 이 사실은 모든 교리에서 선언되고 있듯이 자신의 거짓됨을 명백히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하나이지만, 반면에 거짓은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정직한 것은 단순하지만 부정직한 것은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고백하여 마음에 성령의 빛이 비추인 자가 그런 거룩한 교회의 분열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탄의 역사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부를 하십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들은 기독교가 결코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 이웃과의 화합의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요? ... 반면에 그들은 어떤 언어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열정으로 카톨릭 교회와 성령에 대하여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고, 여러 영들을 소개하며, 화합된 상태를 교란키 위한 이전을 제시하여 기독교로부터 일치점을 몰아내려는 공공연한 적들입니다. (For already, since these men began, how many sects have torn the Church? sects not agreeing with them, and yet disagreeing with each other—a manifest indication of falsehood, as all doctrine declares. Truth is always one, while falsehood is varied and multiform: that which is straight is simple, that which is crooked has many turns. Can anyone who acknowledges and confesses Christ, and into whose heart and mind the Holy Spirit hath shone, fail to perceive that such rending, such tearing of the holy Church, is the proper work of Satan, and not of God? What does God demand of us? What does Christ enjoin? That we be all one in Him ... Do those men suppose that the Christian religion is anything at all but peace with God, and concord with our neighbor? ...

To this Catholic Church and Holy Spirit those, on the contrary, are professed adversaries who attempt to break unity, to introduce various spirits, to dissolve consent, and banish concord from the Christian religion, attempting this, with an eagerness and a zeal, by machinations and arts, which no language can sufficiently express.)<sup>12</sup>

<sup>12</sup> Ibid., 46-47.

## 2. 로마교회가 참 교회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사들레토는 두 가지로 증명을 하려고 한다. 첫째, 진리가 진리로서 인정 되려면 반드시 오랜 전통을 가져야 한다. 진리는 하루나 이틀 사이에 형성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개신교도들과 같이 25년도 못되는 연약한 전통이 아니다:

내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500년 이상, 보다 정확한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면 1300년 이상,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세상에 군림해 왔던 카톨릭 교회와,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들에 의해서 겨우 25년 전에 설립된 신흥종교 가운데, 어느 쪽을 보고 따르는 것이 당신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The point in dispute is whether is it more expedient for your salvation, and whether you think you will do what is more pleasing to God, by believing and following what the Catholic Church throughout the whole world, now for more than fifteen hundred years, or (if we require clear and certain recorded notice of the facts) for more than thirteen hundred years approves with general consent; or innovations introduced within these twenty-five years, by crafty or, as they think themselves, acute men: but men certainly who are not themselves the Catholic Church?)<sup>13</sup>

둘째, 전통 하나만 가지고 참 교회가 할 수 없고, 이 전통은 성령의 인도 하심을 받아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고 승인된 것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유일하신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 왔습니다. 카톨릭 교회 안에는 어떠한 분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정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or, to define it briefly, the Catholic Church is that which in all parts, as well as at the present time in every region fo the world, united and consenting in Christ, has been always and everywhere directed by the one Spirit of Christ: in

<sup>13</sup> Ibid., 40-41.

which Church no dissension can exist: for all its parts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breathe together.)<sup>14</sup>

### 3. 성도의 구원은 믿음과 성도의 선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은 믿음(faith)과 선한 행동(good works)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고 설파한 종교개혁자들은 무엇보다도 카톨릭의 구원관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하기에 사들레토의 말을 직접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하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지상에서 열심히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씨를 뿌려야만 나중에 하늘 나라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연구를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천상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Our task, accordingly, is thus divided—having first laid the foundation of faith, we must thereafter labor here in order that we may rest yonder: we must cast seed into the earth, that we may afterward be able to reap in heaven: and in whatever works, or whatever studies we have exercised ourselves here, may ultimately obtain similar and fit fruits of our works and labors in another life.)<sup>15</sup>

요약하면 사들레토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참이며 하나뿐인 교회인 것은 교회의 일반적 전통, 종교회의의 교리적 승인,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신학이론 속에서 그는 로마교황청의 권위와 로마 교회의 성례전의 합법성을 인정한다.

## IV. 칼빈의 응답

칼빈의 응답은 길고 자세하다. 사들레토 편지의 분량보다 2배가 넘는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사들레토가 제시한 교회분열과 참 교회의 문제를 여기

<sup>14</sup> Ibid., 41.

<sup>15</sup> Ibid., 32.

서도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 1. 교회는 분열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교회는 분열될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논거이다. 참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우주적이며, 사도들에 의해 전승되었다. 성경과 사도적 전승에서 정의해 주는 참 교회의 특성을 칼빈은 부정할 일이 없다. 이러한 참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칼빈은 루터나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로마교회를 참 교회로 보지 않았다. 참 교회가 아닌 교회는 거짓교회이고, 잘못된 거짓교회는 보호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의 입장에 서있는 자신이나 파렐, 비레와 같은 자들은 아무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쩔 수 없는 특수환경, 곧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탈하여 교회가 배교할 때에는 교회의 분열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 2. 참 교회는 어떤 것인가?

칼빈은 3가지 중요한 표지가 있어야 참 교회로 본다. 첫째, 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다. 둘째, 참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셋째, 참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지도하에서 형성된 신학적 전통(합당한 성례전 등)을 따른다. 칼빈의 말을 직접 경청해 보자:

당신은 '교회'라는 말에 대하여 망상에 사로잡혀 있든가 아니면 적어도 고의적으로 그 말에 걸치레를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은 어느 정도 잘못 알고 있기도 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당신이 일부러 교회라는 말에 허식을 붙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교회라는 말의 정의를 내리면서 당신은 조금이라도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들을 모두 생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교회란 현재 지구상 모든 지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결합되고 승인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당신은 교회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지도된다는 것과,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확실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교회를 위탁하셨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



서는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고 성령을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셨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에 의해 다스려야 하지만 보다 확실하고 안정되기 위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 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양들은 자기들의 목자이신 주의 목소리와 샅꾼의 목소리를 [구별하여] 알고 있습니다 ... 당신은 사도의 글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교회의 새로워짐이나 혹은 교회가 온 세상으로 확장해가는 [이유]를 예언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홍왕으로 들렸습니다. 선지자들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네 개의 강으로 나누어진 후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고 예언했습니다(슥 14:8). 그리고 그들은 이 생수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사 2:3). (You [Sadoleto] either labor under a delusion as to the term church, or, at least, knowingly and willingly give it a gloss. I will immediately show the latter to be the case, though it may also be that you are somewhat in error. First, in defining the term, you omit what would have helped you in no small degree to the right understanding of it. When you describe it as that which in all parts, as well as at the present time in every region of the earth, being united and consenting in Christ, has been always and everywhere directed by the one Spirit of Christ, what comes of the Word of the Lord, that clearest of all marks, and which the Lord himself, in pointing out the Church, so often recommends to us? For seeing how dangerous it would be to boast of the Spirit without the Word, He declared that the Church is indeed governed by the Holy Spirit, but in order that that government might not be vague and unstable, He annexed it to the Word. For this reason Christ exclaims that those who are of God hear the Word of God-that His sheep are those which recognize His voice as that of their Shepherd, and any other voice as that of a stranger (John X. 27). . . . Nor will you find this in the apostolical writings only, but whenever the prophets foretell the renewal of the Church, or its extension over the whole globe, they always assign the first place to the Word. For they tell that from Jerusalem will issue forth living water which, being divided into four rivers, will inundate the whole earth (Zech. xiv. 8). And what these living waters are they themselves

explain when they say, "The law will come forth from Zion, and the word of the Lord from Jerusalem"(Is. ii. 3).<sup>16</sup>

칼빈은 사돌레토가 참 교회의 표지로 오랜 전통과 성령의 인치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것을 통렬하게 비난한다. 그리고 사돌레토가 교회의 전승을 강조하여 로마교황과 교황청, 그리고 로마교회가 만든 잡다한 전통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교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나는 사도들이 만들었던 교회의 형태에 대해 당신이 회고하도록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비록 참된 교회의 유일한 본보기는 오직 그 교회뿐이며 따라서 조금이라도 그 교회에서 어긋난 사람은 큰 오류를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대신 나는 헬라인이었던 크리소스톰과 바실, 그리고 로마인이었던 키프ريان, 암브로스, 어거스틴의 저서들 속에서 자기 시대에 있었다고 말한 바로 그러한 고대 교회 형태를 당신 눈 앞에 실제로 세워 보일 수 있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들 가운데 살아있는 그 교회의 잔재에 대하여 목상하시기 바랍니다. (I will not press you so closely as to call you back to that form which the Apostles instituted (though in it we have the only model of a true Church, and whosoever deviates from it in the smallest degree is in error), but to indulge you so far, place, I pray, before your eyes, that ancient form of the Church, such as their writings prove it to have been in the age of Chrysostom and Basil, among the Greeks, and of Cyprian, Ambrose, and Augustine, among the Latins: after so doing, contemplate the ruins of that Church, as now surviving among yourselves.)<sup>17</sup>

약술하면 칼빈에 있어서 참 교회는 1,500년이나 그 이상의 전통을 가졌다고 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오랜 전통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할수 있단 말인가? 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 둘에 근거한 합당한 전통(성례전 등)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sup>16</sup> Calvin's Reply to Sadoleto, *A Reformation Debate*, 60-61.

<sup>17</sup> *Ibid.*, 62.

### 3.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신자의 의롭게됨은 오직 믿음으로만 성취된다. 그러하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다. 칼빈은 사도레토의 구원관, 곧 “구원=믿음+선한 일”을 부정하고 오직 믿음을 주장한다. 그는 사도레토에게 이렇게 말한다:

젠 먼저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우리들의 논쟁 주제 중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다루기 까다롭고 무익한 것입니까? 칭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을 잃고, 신앙이 말살되며, 교회는 파괴되고 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들이 인간의 기억에서 무참히 지워버렸던 그 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쓴 저서들 속에는 칭의에 대한 확실있는 증거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의 닦으로 돌림으로써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악의있는 편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You[Sadoleto], in the first place, touch upon justification by faith, the first and keenest subject of controversy between us. Is this a knotty and useless question? Wherever the knowledge of it is taken away, the glory of Christ is extinguished, religion abolished, the Church destroyed, and the hope of salvation utterly overthrown. That doctrine, then, though of the highest moment, we maintain that you have nefariously effaced from the memory of men. Our books are filled with convincing proofs of this fact, and the gross ignorance of this doctrine, which even still continues in all your churches, declares that our complaint is by no means ill-founded. But you very maliciously stir up prejudice against us, alleging that by attributing everything to faith, we leave no room for works.)<sup>18</sup>

그렇다고 칼빈이 선한 일을 부정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사도레토, 여기에서 당신은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위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확실히 우리는 칭의에 있어서의 행위란 지푸라기 하나 만큼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나 분명히

<sup>18</sup> Ibid., 66.

모든 자는 길을 잃었다고 밝히 말하고 있고, 인간 자신의 양심도 심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외에는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 우리는 선행이 칭의에 있어서 조금의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선행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어디에나 성령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의는 반드시 중생과 관계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믿음과 행위가 얼마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고전 1:30)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 보십시오. (What have you here, Sadoleto, to bite or carp at? Is it that we leave no room for works? Assuredly we do deny that in justifying a man they are worth on single straw. For Scripture everywhere cries aloud, that all are lost; and every man's own conscience bitterly accuses him. The same Scripture teaches that no hope is left but in the mere goodness of God, by which sin is pardoned, and righteousness imputed to us. . . We deny that good works have any share in justification, but we claim full authority for them in the lives of the righteous. For if he who has obtained justification possesses Christ, and at the same time, Christ never is where His Spirit is not, it is obvious that gratuitous righteousness is necessarily connected with regeneration. Therefore, if you would duly understand how inseparable faith and works are, look to Christ, who, as the Apostle teaches ( I Cor. i. 30) has been given to us for justification and for sanctification.)<sup>19</sup>

칼빈은 성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와 사돌레토와의 차이는 사돌레토가 성화를 구원의 필수요소로 본 것에 대하여 칼빈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한 일이 구원을 이루는 데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성화가 이루어가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함으로써 칼빈의 성화론은 그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sup>19</sup> Ibid., 67-68.

## V. 정리

칼빈과 사들레토의 신학적 논쟁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더욱 분명히 갈라놓는 분수령으로 작용하였다. 카톨릭의 온건한 개혁자인 사들레토는 당시 제네바의 정치상황을 적절하게 직시하지 못했으며, 카톨릭의 오랜 역사속에서 수행되어온 여러 비행을 개신교 개혁자들과 같은 날카로움으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교황과 개신교 개혁자들 사이에서 중용과 온유로 유럽 종교의 대연합을 꿈꾸었던 사들레토는 처음부터 안될 일을 해볼려는 “무리한” 이상주의자인 셈이다.<sup>20</sup>

반면에 칼빈은 이 논쟁으로 인해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개신교 신학자로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스트라스부르크와 스위스 개혁교회의 지도자들로 부터 더욱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sup>21</sup> 루터도 칼빈의 글을 상당한 기쁨으로 읽었다고 1539년 10월 부처에게 편지하였다. 사들레토는 칼빈의 양 어깨에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 되어버렸다.

제네바는 칼빈을 쫓아내고, 그에게 아픈 상처를 남겨주었지만 칼빈은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위험한 곤경을 해결해 주었다. 여기에 칼빈의 영적인 깊이와 양떼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이 돋보인다. 이러한 목자의 심정이 있었기에 그가 다시 제네바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다.

<sup>20</sup> John Olin, *Catholic Reform*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90), 22.

<sup>21</sup> Bruce Gordon, "Calvin and the Swiss Reformend Churches," *Calvinism in Europe*, ed., Andrew Pettegre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63-81.